

자료를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때 본고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필요성 제시 수준에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광역지역별 세무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지방세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 업무량 분석은 세수·납세자수·징수율을, 행정수요분석은 인구·GRDP·면적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에 있어 지역간 업무량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표준점수(Z-score)를 살펴 보았으며 인력과 세수·징수율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계수(Pearson계수)를 검토했다. 그 결과는 <표 6> 과 같다.

다음으로 징수율과 인건비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징수율 1%증가시 증대되는 세수액으로 충원할 수 있는 인력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 2. 분석결과

광역지역별 지방세 담당인력 분석결과를 <표 6> 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유량(Flow) 적 측면에서 지방세 인력이 역사적으로 세수와 사회·경제 변수의 변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분석결과 지방세수(↑74%), GRDP(↑49%), 납세자수(↑15%)는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무담당인력은 오히려 감소(▲12%)하는 추세이다.

둘째, 저장(Stock)적 측면에서 세무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변수상의 업무

량을 지역별로 분석결과 Z-score값에 있어 1인당 징세액·담당인구수·GRDP·납세자수는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이 도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인당 담당면적은 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하여 1인당 담당면적이 넓으면서 세수, 인구수, GRDP, 납세자수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인력과 세수·징수율간의 관계 분석결과, 징수율은 세무인력의 증가와 다소간에 연관성(세무인력증가율과 징수율 증가율의 Pearson계수 0.469(Sig.0.077))을 가지고 있으나, 세수증감은 세무인력증가와의 관련성(세무인력증가율과 세수증가율간의 Pearson계수 0.159(Sig.0.571))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후자분석의 경우 유의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나, 세수증감은 인력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변수인 인구(Pearson계수 0.402(Sig.0.137)), GRDP(Pearson계수 0.373(Sig.0.170))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징수율과 인건비 관계 분석결과를 <표 7> 을 통해 살펴보면, 징수율을 1% 증가시킬 경우 표에서 보듯이 3,208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세수 증가액은 8,0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동 인력은 '01년 전체 지방세 담당 인력의 69%에 해당된다.